

서 교육감 “양질의 늘봄 서비스 제공”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위해 전주 만성초 찾아 현장 점검… 준비상황 등 직접 살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신학기를 앞둔 27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 만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수요조사 현황 △공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체계 △늘봄 프로그램 구성 △실

무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늘봄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생 개별 맞춤형 귀가를 위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늘봄 실무인력·학교 안전지킴이·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인터폰·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해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7일 전주 만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 일반고 전환 도내 학교 2곳 재정 지원

전주예술고(신입생)·한국게임과학고 수업료·입학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주예술고와 한국게임과학고를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 수익 용기본재산 확보를 통한 학교설립 변경 인가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한국게임과학고 전체 학년이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받고, 특수 목적고에서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주예술고는 신입생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적

극적인 관심과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내 지역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

서거석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 아래 있던 두 학교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 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 문창초에 도내 첫 AI 팽톡 존 설치

도내 최초… 공부 흥미 느끼는 긍정적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최초로 군산 문창초등학교에 AI 팽톡 존이 설치됐다고 27일 밝혔다.

AI 팽톡 존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 시간 또는 자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및 놀이 공간으로, 서울과 제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문창초에 설치됐다.

문창초는 지난해 EBS 콘텐츠 활용을 통한 영어 수업 혁신 연구학교로 AI 팽톡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과 수업 혁신 방안을 연구했다.

이 학교 송진아 교사는 AI 팽톡 활용



수업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한 ‘2024년 AI 팽톡 활용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AI 팽톡 존 설치로 학생들이 ‘학습+체험+놀이’ 공간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초등 교사 대상으로 AI 팽톡을 활용한 영어 플랫폼 활용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영어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초등 영어학습 프로그램, 교사 대상 수업전문성 향상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여건에 대비한 살아있는 영어수업 활용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 돌입

전북교육청, 내달 2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28일까지 5주간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417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시군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교통안전 위해요소 점검 분야는 어

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관리, 통학로 인근 사고 위험 지역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이 있다.

집중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어린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아이먼저’ 캠페인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올해는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제품안전, 환경안전까지 ‘아이먼저’ 캠페인을 확대해 어린이 안전

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가정에서도 ‘아이먼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학교 가정통신문, 지자체 누리집·안전신문고 등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키운다

우석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가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석대학교 수소모빌리티공학과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혜택과 함께 지역 기업들과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학원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EMFC 및 DMFC 시스템 분석과 스택 제작 및 테스트 등의 현장 실습을 (주)가운셀에서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대련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기업 JINDA GROUP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견학하고, 최신 수소모빌리티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서광수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주임교수는 “수소모빌리티 융합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산업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는 ‘수소중심 대학’으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고, 수소모빌리티 융합기술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주대, 자유전공학부 공동체 리더십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동체 리더십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5학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RC(Residential College) 교육의 일환으로, 신입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대학 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자유전공학부 공동체 리더십 캠프는 사제동행 지도교수, 선배학생멘토,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RC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와 성장 지원 △적성 기반 전공 탐색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핵심 목표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신입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됐다.

임소식에서는 수퍼스타칼리지 이정희 학생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자유전공학부장 겸 RC센터장 박성희 교수의 인사말, 공동체 리더 소개, 대표자 선서 등이 진행되며 캠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난 26일에 진행된 박진배 총장의 ‘행복과 성공’이라는 특강은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재훈 기자



27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2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가운데, 신입생 대표선서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기술·실무인력으로 성장하길”

전주비전대,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거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7일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2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새로 대학의 문턱에 들어선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비전대학교는 4년제 졸업 후 유턴입학을 지원한 97명, 외국인 유학생 180명, 18세의 최연소 입학생부터 87세의 최고령 만학도까지 전문 학사와 학사학위심화과정을 통한 1,189여명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은 개식, 입학허가선언, 신입생 대표선서, 총장 환영사, 졸업선배 멘토담, 축하공연, 오리엔테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입학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교현정 동문(충

남 부여 소방서 소방장)이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노하우를 전하며 신입생들을 응원했고, 유학생 동아리가 K-POP 댄스를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우병훈 총장은 환영사에서 “도내 지역 인재, 지역 정주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우리 대학의 우수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기술인력과 현장 실무인력으로 성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취업명품대학인 전주비전대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취업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방안 발표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교육발전특구
전북교육협력지구 등 지자체 공동대응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가 1:1 대응투자료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전북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와 대응투자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덧붙여 실효성 있는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단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단을 도내 14개 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총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부안·순창·남원·정읍 도내 4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72억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의 특색과 수요를

반영한 학교복합시설을 발굴해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1개 지역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2025년에도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48억원을 교부받았고, 지자체 대응투자 예산과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한 총사업비 936억원을 들여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간 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지자체-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협력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강좌 확대

전북교육연수원, 올해 총 20회로… 지난해 첫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024년 처음 도입한 ‘함께하면 더 특별한 공감’ 공개강좌를 2025년 총 2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정규 교육과정의 우수 교과목을 지방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프로그램으로 2024년 첫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시·도교육연수원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2025년에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바탕으로 직급별·직위별 맞춤형 강좌를 구성해 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 이해와 협업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포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개최되는 올해 첫 번째 공개강좌는 한국국가

기록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익한 교수가 ‘기록의 힘’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기록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자기계발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민완성 원장은 “2024년 첫 공개강좌가 지방공무원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교육 참여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 2025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